



# 쏙 독 새

최 무 영 < 한국조류보호협회 부회장 >

## 쏙

독새는 동남아에서 월동하고 꽃소식을 따라 동북아 지역으로  
날아와 번식하는 여름 철새이다.

쏙독새목 쏙독새과의 조류들은 위도가 높거나 뉴질랜드 같은 일부  
도서 지방을 제외한 전세계에 67종이 분포되어 있다.

몸길이 약 29cm로 날개와 꼬리가 길어 공중에서 곤충을 잡는 모습이  
마치 바람을 가르고 나는 화살처럼 재빠르다.

그러나 올림픽금메달리스트의 투창 솜씨처럼 날렵한 사냥솜씨를 관  
찰하기란 그리 쉬운 노릇이 아니다. 몸빛이 흑갈색인 데다 사는 곳이  
숲속이고, 주로 어두운 저녁과 새벽에 활동하는 야행성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남산이나 인왕산 부근, 북한산 기슭, 대학의 뒷동산 등지에 일  
찌감치 날아든 뒤에도 낮달처럼 없는 듯이 숨어살던 쏙독새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시기는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걸치는 결혼 시즌이다.

쭈뼛, 쭈뼛, 쭈뼛, 쭈뼛... 연락 부절로 이어지는 숲속의 열창은 짝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치는 법이 없다.

사람들은 쭈뼛새의 오이나 애호박을 칼로 썬 것같은 소리를 무심하게 들어넘기지만 그들로서는 목숨을 내놓고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래는 암컷을 끌어들이고, 텃세권 밖으로 경쟁

자인 다른 수컷들을 쫓아 내는 순기능도 수행하지만 포식 동물을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신호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쭈뼛새 수컷에게는 일신상의 안위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죽음에의 공포보다 강한 것이 이성애의 애모이며, 번식 행위야말로 그들이 이 세상에 있게 하는 유일무이한 존재 이유이

므로 서슴지 않고 목숨을 거는 것이다.

종(種)의 번성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쭈뼛새의 수컷들은 남보다 더 길게, 더 우렁차게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특유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불러 대고, 암컷들은 콩쿠르 대회 심사 위원처럼 엄숙한 표정으로 채점을 하다가 가장 노래를 잘 부른 가수를 골라 신방을 꾸민다.

따라서 쭈뼛새 수컷들에게 있어 행복은 성적순일 수밖에 없다. 입상자 반열에 들지 못하면 1백일 가까이 악을 쓰며 노래를 불러야 하는 곤욕이 기다리고 있고, 그 기나긴 콩쿠르대회는 심중 팔구 목숨을 노리는 불청객의 내방으로 판막음 될 개연성이 높다. 나뭇가지나 땅위에 꼼짝 않고 앉아 있으면 제 아무리 총질에 이끌난 사냥꾼이나 매서운 눈을 가진 맹금류들의 발톱도 겁나지 않을텐데 이성애에 대한 열정을 주체 못해 명을 재촉하는 쭈뼛새를 보노라면 여자는 핵(劾)보다 위험한 존재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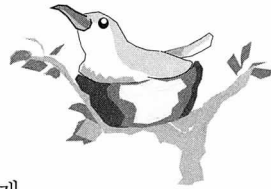
생각이 절로 든다.

쑥독새는 낮시간의 대부분을 나뭇가지에서 보내면서도 산란은 바다 오리와 바다제비 등 바닷새 종류처럼 땅 위에 낳는 이상한 습성을 갖고 있다.

물론 나무 위나 지붕 위에 등지를 틀고 산란하는 종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은 땅 위에 직접 산란한다.

새들이 등지 터를 고를 때 세밀하게 배려하는 것은 부화에 맞는 기후와 약탈자로부터 알과 새끼를 보호하는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쑥독새는 왜 하필이면 적의 왕래가 빈번한 땅 위에 알을 낳는 것일까.

더구나 5~8월 풀이 무성할 때 낳는 알이 흰색이어서 주위의 풀빛과 선명하게 대비되고, 포란 기간도 19일로 짧지 않으니 대개의 관찰자들은 쑥독새 부부가 제대로 새끼를 길러낼 수 있을지 걱정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런 관찰자들의 우려는 심중팔구 기우에 그치고 만다. 쑥독새는 가짜 알을 천연덕스럽게 품는 제비갈매기나 해오라비처럼 저능한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혼 시즌 초기에 웨딩마치를 올린 커플들은 먼저 부화한 새끼들이 미처 독립하기 전에 새로운 알을 낳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수컷들은 먼저 태어난 새끼들은 돌보고, 암컷은 지면색에 적용한 깃털로 알을 덮어 약탈자들의 시선에서 알을 보호한다.

쑥독새의 위장술은 가히 천재적이다. 유럽쑥독새는 나무껍질 무늬의 깃털을 하고 나뭇가지와 같은 방향으로 가슴을 꼭 붙이고, 호주에 사는 넓적부리쑥독새는 몸을 꺾인 나뭇가지처럼 위장하는 특별한 기술로 위기에 대응한다.

나이지리아의 초원에서 번식하는 깃발날개속독새는 가늘고 튼튼한 우축(羽軸)의 끝에 달린 검은색 장식용 깃털을 이용하여 약탈자들의 추적을 따돌리는 '깃털 놀이'의 명수다.

약탈자가 등지 가까이 접근하면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부상을 가장, 비틀비틀 수 미터를 날아 눈에 잘 띄는 땅 위에 예의 깃발을 걸쳐 놓는다.

약탈자가 그 깃발을 따라가면 전혀 예상 밖의 위치에서 날아오른 속독새는 같은 방법을 몇차례 반복하여 약탈자를 위험 지역밖으로 유인해 내고는 땅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처럼 홀연히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속독새 종류 중에는 개구리나 다람쥐처럼 겨울잠을 자는 놈들도 있다. 쇠미국속독새가 바로 화제의 주인공이다.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겨울에 바위 틈에 끼어 마치 죽은 것처럼 혼수 상태로 잠을 자는데 평상시 체온 섭씨 41도를 18도로 낮추어 에너지를 극도로 절약하여 생명을 연장한다.

먹이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대신 겨울잠을 택했으니 게으른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분간이 되질 않는다.▲▲

## 알 림

-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국립공원문화」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 분량의 원고와 함께 사진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실어드리겠습니다.

### ☞ 보낼 곳

전자우편 : 천리안 NPKA2420  
하이텔 NPKA2420

FAX : 912-4243

우편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산 1-1 국립공원협회